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현황과 공무원 인식수준의 비교분석*

홍 성 우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in terms of the public official's awareness of local autonomies empirically and comparatively.

The international exchange as a means of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1990s. This trend has been affected both inaugura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ternally and emerging trend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ly. Also, the number and ratio of international exchange are different among local autonomies. That is, the ratio of municipal government(si) international exchange is very higher than that of other local governments(gu/gun) relatively.

Then,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official's awareness of overall internationalization level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openness of overseas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ask among local authorities. Namely the public servants who are working in the municipal government(si) recognize their government's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much higher than other governments(gu/gun)' officials aware the degree of their governments' internationalization.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62-A00011).

주 제 어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국제교류, 국제화 인식

key words : local autonomy,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exchange, internationalization awareness

I. 서론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그리고 세방화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오늘날 우리 세계는 지역, 국가, 지방 및 기업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또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른 하나의 경쟁과 협력의 주체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국가 간의 경계영역이 좁어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어지면서 지방(또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한 것이기 때문이다(조성호·박희정, 2004: 104). 세계는 점점 국경이 없는 상태가 진행되면서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량 및 권한 강화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화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 인권문제, 인구문제 등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해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져가고 있다(이정주 외, 2001: 144).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주체이자 동시에 국제교류 활동의 단위로써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주·최외출, 2003: 146).

이렇듯 세계적 차원의 경쟁과 협력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정부는 치열한 내·외부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강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쌍방향적인 세방화(세계화·지방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대내적인 지방분권화와 대외적 차원에서의 세계화 및 국제화의 요구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정치, 행정 및 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송하중 외, 2010: 74). 이웃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국제화 추진의 주체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라는 표현이 폭 넓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윤재선, 2008: 3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는 국제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화 개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계화, 세방화 등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국제화 개념을 고찰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국제화 수단의 하나인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현황과 실태, 그리고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국제화 관련 개념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의 국제화란 ‘한 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조성호·박희정, 2004: 105). 이러한 국제화 개념은 학문적 연구 대상과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고 있다. 먼저, 국제화를 사회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세계화 및 지구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형렬 1993: 2).

이러한 측면에서 박세일의 연구(1994)에서는 국제화·세계화를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소위 ‘무국경경제(borderless economy)’의 등장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가 간의 상품과 자본의 이동,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 격증하면서 이들의 국내이동과 국가간 이동 사이의 차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화를 인간의 생존조건의 지구촌화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는 종래 인간의 삶은 지역적·국가적 조건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 조건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박세일, 1994: 6-7).

이용현(1994: 1567)은 국제화의 개념을 기존 선행연구(노화준 외, 1994; 박중호, 1994; 고범서, 1992; 한국사회학회, 1994) 고찰을 통해 ①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는 행태와 경험의 유형을 발전시켜 가는 총체적 과정, ②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내용, 절차, 행태 등에서 국제수준을 갖추는 것, ③한 국가와 국민의 활동무대가 세계로 확장되는 것, ④세계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그리고 ⑤지구상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전지구적 공동체를 실제로 하는 개념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세계화(globalization)는 동서이념 분쟁의 종식과 더불어 교통·통신기술 발달과 개방화에 힘입어 국가 간의 상호관계가 긴밀하게 되는 현상으로 본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경, 국적 또는 국명으로 인한 교류 장벽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지고, 국

가 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구촌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문화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화 등)으로 구분한다(충남발전연구원, 2005: 1).

이러한 세계화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심화·확대된 개념으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민간과 민간,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의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형태로 정의하기도 한다(길병욱, 2004: 293). 또한 국제화를 세계화라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국제화란 세계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즉 서구의 현대화 과정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우서, 1997).

반면 국제화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관행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우리의 제도와 규범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확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세계화는 국제화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우리의 세계적 비중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태범, 1995: 12).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논의와 더불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세방화(glocalization)는 기존의 세계화가 항상 지방화 현상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지방의 특수성 혹은 각 나라의 특성을 좀 더 부각하는 세계화의 진행이 세방화로 인식된다(김신동, 2004: 41). 이러한 세방화는 1994년 Robertson에 의해 명명된 이론적 개념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합어이다. 일반적으로 세방화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기업문화나 쇼핑 습관 등을 지방의 기호와 차이에 적응시키고자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Matusitz & Forrester, 2009: 158). 이러한 세방화에는 지방의 세계관이나 기대에 부응하고자 문화적 동화(synchronization)와 규범이나 관습의 적응(adjustment)의 개념 등이 포함된다(Kraidy, 2001)고 한다(Matusitz & Forrester, 2009: 158-159).

세방화는 특정의 지방 또는 도시정부가 중앙정부나 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 계층체를 우회하면서 IT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체제와 직접적인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사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갑수, 2009: 5). 세계화가 세계(global)의 주도성과 지방(local)의 종속성에 입각하여 양자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세방화는 세계화가 동질화와 다양화라는 상반되는 계기를 함께 지녀 '세계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서로 분

1) 이렇듯 세계화는 다의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Meyer(2000)는 세계화의 의미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의 이동성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세계화는 주권국가들 간의 정치적·군사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설명하고, 여기서의 주된 행위자는 국가가 된다. 둘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간 또는 다국적 공공조직 및 기업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세계화를 개념화하고, 국가와 기업이 주된 행위자가 된다. 셋째는 국가와 더불어 개인이 주된 행위자로서 전체 사회 내에서의 개인들의 이동의 확대를 의미한다. 넷째는 문화적 차원의 세계화로 지구적 의사소통의 강화로 표현적인(expressive) 문화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세계화의 한 부문으로 설명하고 있다(Meyer, 2000: 233).

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의 사회공간에서 연속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최갑수, 2009: 6).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1)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국가사회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촉진하는 기본요소로 인정된다. 사회변화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국제화는 지역개발과 그 국제화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 국제화 추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이용훈, 1994: 1568). 첫째는 사회변화에의 대응의 논리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사회구조의 격변, 그리고 시·공간개념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의 대응의 논리를 구현하는 과정을 지방의 국제화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주도 발전전략의 논리이다. 지방주도 발전전략은 분권과 자율을 기조로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발전 잠재력개발에 핵심이 있다. 국제화시대의 사회체제 개발은 '아래로부터의 발전모형'의 적용을 통해 지방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지방의 국제화는 지방주도 발전전략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셋째는 지역경영의 논리이다. 지역경영은 지역 행정과 경제과정 및 주민 자율활동의 종합체제화 과정으로, 지방의 국제화는 현대적인 경영과정과 기법이 행정과정과 민간단체 및 기업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이 과정들이 새롭게 편성되어 민관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구조의 활용에 의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화란 시간과 공간이동의 단축을 전제로 세계국가가 인적·물적 자원,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융합되고 의존성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길, 2003: 121). 나아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 국제화는 국가사회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기본요소로 인정되고 있다(이용훈, 1994: 1567). 더불어 無국경경제와 무한경쟁(김병준, 2005: 495)의 시대적 흐름은 민족 국가적 체제를 벗어나 국제경쟁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우권, 2009: 380).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란 '지구화, 지식정보화, 네트워크화 등 지방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서 국제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 등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윤식, 2004; 이우권, 2009: 380).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사람, 물건, 정보가 이데올로기

체제의 붕괴와 자유화의 영향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나 다음의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이우권, 2009: 381).

첫째는 권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경제적 세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치단체 간 인적·물적 자원교환, 비군사적인 분야 및 문화부문 등에서의 교류를 증시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임승빈, 2006).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세계화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이다(김익식, 1996). 한 국가의 입장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추진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 자치단체의 세계화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만만의 외교관계 형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방향과 추진내용

추진방향	지방행정의 세계화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지역주민의식의 세계화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 행정절차의 간소화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 정보안내 센터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 지방공무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 민간교류의 활성화 - 문화·예술·체육·학술교류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의 개발/지원 - 해외시장의 개척 - 통상관련 정보의 제공 - 통상관련 상담실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정체성의 확립과 주민의식의 배양 - 인류보편적인 가치관 함양 - 국제예절의 배양 - 주민의 세계화 교육

출처: 권경득(1999), p. 3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향하는 공간의 문제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등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 4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유형화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공간의 문제(locus)로 국내 외를 고려하여 내향적인(inward) 것과 외향적인(outward) 것으로 구분하며, 다음으로는 국제화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focus)가 경제적인지 사회적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이를 병행하여 4차원으로 분류한다(이시철, 2007: 756). 즉, 외향적 이익추구형(outward interest-seeking), 내향적 이익추구형(inward interest-seeking), 내향적 나눔형(inward sharing), 그리고 외향적 나눔형(outward sharing)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오늘날 지방단위의 국제화는 외부를 지향하며(outward), 단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외향적 이익추구형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이시철, 2007: 749).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가수준의 국제교류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지방자치정책연구회, 1985; 황정홍·전영평, 2000: 72)

첫째, 국가수준에서의 이해나 대립을 초월해서 인간 대 인간(people to people)의 민간교류로서 국제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를 자극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과 변혁을 가져다 준다. 셋째,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국제인식과 국제이해를 환기시킨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교류 수준을 다원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심화시킴으로서 지역의 국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

2) 국제화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중앙정부의 지시보다는 스스로의 결정 및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등 국제화 인프라 구축과 국제대회 유치,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박람회, 외자유치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국제화 전략은 지방행정에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다(김병량, 2000: 18).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은 환경, 빈곤, 인권 등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매도시의 생활양식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상호 증진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이우권, 2009: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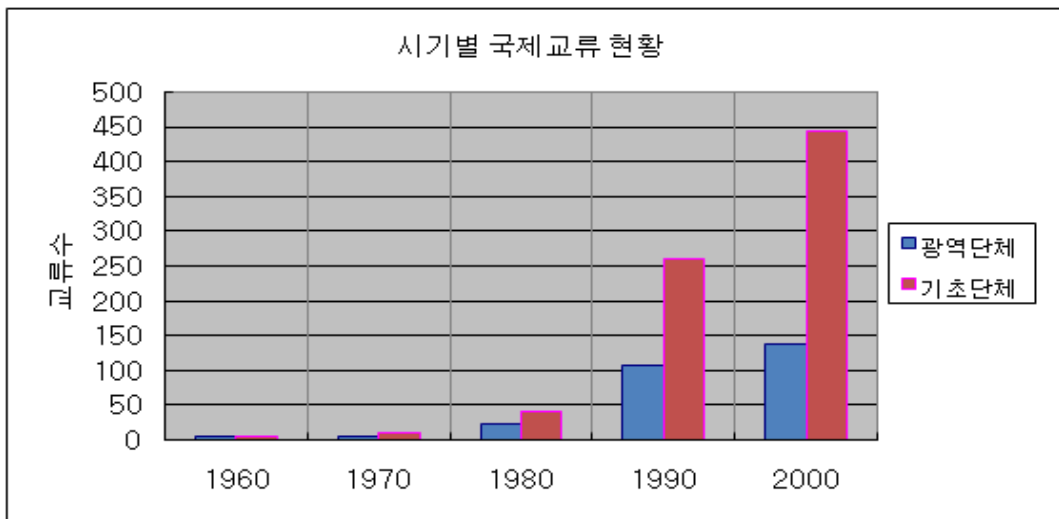
이렇듯 두 지역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방면의 종합적인 교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는 서구의 경우 근대국가 확립 이후인 1913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대등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간 국제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56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창한 “people to people” 운동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이정주·최외출, 2003: 147).

또 다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의 등장을 설명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에서 국제교류가 외교(diplomacy)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인 1920년대 유럽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 후 국제도시 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1940년대 말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상호이해와 우의를 다질 목적으로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1,000개의 자매도시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하나의 유럽도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

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961년 6월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레곤주의 Eugene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²⁾한 이래 2007년 12월말 현재, 국내 225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61개국 945개 지방자치단체와 우호(444개) 및 자매결연(501개)을 체결하여 사람·문화·경제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9).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분권화가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각 지역의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바탕으로 정보교환, 무역, 투자유치 등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노력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추세를 년대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1980년대까지 저조한 교류실적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국제교류 추세

이렇듯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교류는 대내외적으로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실질적·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내적인 정치·행정시스템 측면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

2) 1960년 경기도 안양시와 강원도 원주시가 각각 일본 고마끼시와 캐나다 에드몬튼시와 결연을 맺었으나 일반적으로 1961년 6월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맺은 자매결연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최초의 국제교류로 보고 있다.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던 1990년대 이후에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또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세계화, 국제화 및 지방화 등의 담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연구(이은재, 1994; 권영수, 1995; 이정용, 1995; 김판석, 2000; 박용길, 2003; 허훈, 2008; 이우권, 20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은재(1994)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인적·물적 교류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수(1995)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실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실태를 국제화 추진조직, 추진제도, 자매결연 등의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국제교류의 지역편중 개선, 중앙정부의 통제 최소화 및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제언하고 있다. 이정용(1995)은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정부의 능력 또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판석(2000)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장·단기적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용길(2003)은 강원도의 국제교류(자매결연)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국제교류의 전략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국제교류의 전담조직과 인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훈(2008)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실태를 자매결연에 한정하여 그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여 협력과정모델로의 자매결연의 전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우권(2009)은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으로 탄력적 조직의 구조화와 전문인력의 충원, 그리고 NGO를 활용한 관민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미치는 영향(결정)요인의 탐색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 하영수(2001)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정적인 측면, 업무협조측면, 조직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 공무원의 인식상의 국제교류 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정주 외(2001)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총 교류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정보화 수준, 지방세, 2차 산업 사업체수, 3차 산업 사업체수 및 국제교류 예산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정주·최외출(2003)은 국제교류의 결과로서 국제교류의 효과를 총교역량, 지역내 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교류, 국제교류예산, 총사업체수, 교류기간, 전담부서, 정보화 수준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로 조성호·박희정(2004)은 경기도의 외향적 국제화 사례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내향적 국제화 사례로 ISO 9001 도입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여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 관련 정책의 추진역량 요소가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송하중 외(2010)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국제화 수준과 더불어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를 구분하여 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번역 서비스 및 국제화 관련 간행물 발간 서비스 등이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실태로서 국제교류 현황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실태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http://www.klafir.or.kr>)'에서 구득³⁾한 것으로 자료출처의 신뢰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2차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결과에 대해 광역시·도간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국제교류 체결현황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2차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경험적인(empirical) 분석과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1차 자료에 대한 인식상(cognitive)의 분석 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 수준에 대한 경험적이고 인식적인 특성을 함께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 인식 비교분석

1.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설문 개요

1) 국제교류 체결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230⁴⁾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2.6%에 해당하는 213개의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은 2008년 12월 기준의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http://www.klafir.or.kr>)'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4)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시(75개), 군(86개), 구(69개) 등 총 230개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수단으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있다. 국제교류를 체결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19개로 16개 군과 3개 구⁵⁾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및 광역시·도를 포함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은 총 743건으로 자매결연 유형이 375건, 우호교류 형태가 368건을 차지하고 있다.

<표-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체결 현황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수	교류현황			미 실시 단체수
		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계	230	743	375	368	19
서울	25	105	59	46	
부산	16	33	14	19	1개 구
대구	8	13	5	8	2개 구
인천	10	33	4	29	
광주	5	7	4	3	
대전	5	8	5	3	
울산	5	11	2	9	
소계	74	210	93	117	
경기	31	153	87	66	1개 군
강원	18	66	31	35	1개 군
충북	12	29	11	18	
충남	16	51	22	29	1개 군
전북	14	38	19	19	2개 군
전남	22	73	32	41	2개 군
경북	23	53	35	18	8개 군
경남	20	70	45	25	1개 군
소계	156	533	282	251	

2) 국제화 인식수준 설문조사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2007년에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총 4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중 국제화 수준을 묻는 설문⁶⁾ 결과만을 활용하고 있다.

5)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제교류를 체결하지 아니한 기초자치단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시(1)의 중구와 대구시(2)의 남구와 북구 등 3개 구이며, 경기도(1)의 양평군, 강원도(1)의 정선군, 충남(1)의 서천군, 전북(2)의 장수군과 부안군, 전남(2)의 장성군과 진도군, 경북(8)의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그리고 경남(1)의 함안군 등이다.

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9명(8.7%)의 설문결과는 분석수준을 단일화하기 위해 제외하고, 단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응답인 총 411개(91.3%) 케이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분포되어 있는바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율(39명, 14%)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가장 낮은 비율(10명, 2.4%)을 차지하고 있다.

2.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 인식수준 비교분석

1) 서울·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 인식 비교분석

아래의 <표-3>은 서울 및 광역시 소속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비율과 국제교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25개 구(33.8%)는 총 105건의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국제교류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는 16개(21.6%)의 기초자치단체에서 33건의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보여 15.7%의 비율을, 광주광역시의 10개(13.5%) 기초자치단체에서도 33건의 국제교류를 체결하고 있어 1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보이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뿐이고, 기타 5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보다 낮은 국제교류체결 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3> 서울-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 체결 현황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비율)	교류현황			비고
		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서울	25(33.8)	105(50.0)	59	46	
부산	16(21.6)	33(15.7)	14	19	
대구	8(10.1)	13(6.2)	5	8	
인천	10(13.5)	33(15.7)	4	29	
광주	5(6.8)	7(3.3)	4	3	
대전	5(6.8)	8(3.8)	5	3	
울산	5(6.8)	11(5.2)	2	9	
소계	74	210	93	117	

6) 국제화 정도를 묻는 설문은 총 5가지로 이는 ①단순교류를 벗어나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하였다. ②해외 통상 경쟁력이 높다. ③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능력이 높다. ④해외 관련 업무(예, 경제협력, 스포츠·문화행사, 환경문제, 행정분야 등) 비중이 높다. ⑤전반적으로 국제화의 정도가 높다 등으로 답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4>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산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내용별 인식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수준이 실질적 교류로의 발전, 통상 경쟁력의 확보,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해외 관련 업무의 비중 등 모든 내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른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비율(21.6%)에 비해 낮은 국제교류체결 현황(15.7%)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4> 서울-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화 인식 수준

구 분	실질적 교류	통상 경쟁력	개방성/수용성	해외 업무 비중	평균기	전반적인 국제화
서울	4.51	3.41	4.59	4.13	4.16	4.21
부산	3.07	2.52	3.26	2.56	2.85	2.93
대구	3.36	2.64	3.86	3.43	3.32	3.71
인천	4.33	3.28	3.83	3.94	3.85	3.83
광주	3.90	3.00	3.50	3.50	3.48	3.50
대전	4.00	3.09	3.73	3.55	3.59	3.64
울산	4.20	3.20	3.90	3.30	3.65	3.50
평균	3.91	3.02	3.81	3.49	3.56	3.62

2) 광역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 인식 비교분석

아래의 <표-5>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비율과 국제교류 체결 현황을 광역도 단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산하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19.6%)에 비해 체결된 국제교류 현황은 총153건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상북도는 총 23개(14.6%)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반영되어 국제교류 체결 현황은 53건, 9.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평균값은 실질적 교류로의 발전, 통상 경쟁력 확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정도, 그리고 해외 관련 업무의 비중 등 4가지 설문값에 대한 각 지역별 평균을 의미한다.

<표-5> 광역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 체결 현황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비율)	교류현황			비고
		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경기	31(19.6)	153(27.7)	87	66	
강원	18(11.4)	66(11.9)	31	35	
충북	12(7.6)	29(5.2)	11	18	
충남	16(10.1)	51(9.2)	22	29	
전북	14(8.9)	38(6.9)	19	19	
전남	22(13.9)	73(13.2)	32	41	
경북	23(14.6)	53(9.6)	35	18	
경남	20(12.7)	70(12.7)	45	25	
제주	2(1.3)	20(3.6)	20	-	
소계	158	553	302	251	

아래의 <표-6>은 광역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광역도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서울 및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자치단체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교류 체결현황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광역시·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6> 광역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화 인식 수준

구분	실질적 교류	통상 경쟁력	개방성/수용성	해외 업무 비중	평균	전반적인 국제화
경기	4.67	3.66	4.60	4.29	4.30	4.29
강원	4.42	2.97	3.97	3.76	3.78	3.79
충북	4.38	3.08	3.96	3.25	3.67	3.46
충남	4.38	3.76	4.48	4.07	4.17	4.21
전북	4.25	3.35	3.75	3.40	3.69	3.55
전남	4.40	3.14	4.35	3.65	3.88	3.84
경북	3.95	3.71	4.12	4.27	4.01	4.12
경남	4.53	3.68	4.35	4.18	4.18	4.41
평균	4.35	3.38	4.18	3.81	3.93	3.89

또한 서울·광역시 <표-4> 및 광역도 <표-6> 산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있어서 통상 경쟁력의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의 국제화 수준이 다른 국제화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또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상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해외 통상 경쟁력의 확보라는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통상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국제화 추진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시·군·구별 국제교류 현황과 국제화 인식수준 비교분석

아래의 <표-7>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국제교류체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3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5개로 32.6% 차지하고 있으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있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포함한 국제교류 현황은 402건으로 전체 743건에서 과반을 넘는 5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69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총193건의 국제교류 체결을 하고 있어 전체 교류건수에서 26%를 점하고 있다. 반면 86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지 148건(19.9%)의 국제교류 체결 현황을 보이고 있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앞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교류 미체결 자치단체의 대부분, 즉 총19개 중에서 16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교류 체결 건수도 시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구성비율과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 건수를 단순비교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중심의 군 단위 보다는 2, 3차 산업 중심의 시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7> 시·군·구별 국제교류 체결 현황

구분	자치단체 수(비율)	교류현황			비고
		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시	75(32.6)	402(54.1)	221	181	
군	86(37.4)	148(19.9)	62	86	
구	69(30.0)	193(26.0)	92	101	
계	230	743	375	368	

다음의 <표-8>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준을 시, 군, 구 단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7>에서 보았듯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 현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시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당해 자치단체의 국제화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군과 구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구 단위 국제교류 체결현황이 군 단위 국제교류 체결 현황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에 있어

서도 구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가 군 단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시·군·구별 공무원의 국제화 인식 수준

구 분	실질적 교류	통상 경쟁력	개방성/수용성	해외업무 비중	평균	전반적 국제화
시(133)	4.81	3.79	4.57	4.42	4.40	4.42
군(159)	3.97	3.08	3.92	3.48	3.61	3.64
구(119)	4.00	3.13	3.99	3.58	3.67	3.71
F값	13.997***	11.556***	8.601***	17.132***	-	13.321***

*** <.001, ** <.01, * <.05

또한 위의 <표-8>은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국제화 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정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5개의 설문내용, 즉 실질적 교류, 통상 경쟁력, 개방성과 수용성, 해외관련 업무의 비중,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화 정도 등의 인식에 있어서 시·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순교류를 벗어나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시·군·구 공무원들의 인식에 있어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과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더라도 시와 군(0.84), 그리고 시와 구(0.81) 단위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실질적 교류로의 발전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 통상 경쟁력,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능력, 그리고 해외관련 업무 비중 등의 항목에 있어서도 시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을 묻는 설문결과도 앞선 4가지의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시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시와 구·군)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시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구·군 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분석의 논의

국내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경쟁과 협력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치열한 내·외부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강화와 대외적으로는 지방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념을 세계화, 세방화 등의 의미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제화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교류 현황을 시기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정치·행정적인 환경 변화, IMF위기라는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국제화라는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국제교류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2·3차 산업을 기반으로 행·재정적 자치역량이 높은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활발한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 등의 국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제화의 인식 수준은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온 서울시와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제교류 현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부산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수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제화 수단으로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 현황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시 단위 공무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 교류로의 발전 여부, 통상경쟁력 확보 수준,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수용성 정도, 해외 업무 비중 등에 대한 시 단위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구·군 단위의 공무원 인식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체결 현황과 인식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수준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 정도를 묻고 있는 설문 4가지 항목, 즉 실질적 교류로의 발전, 해외통상 경쟁력 확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해외업무의 비중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평균값과 전반적인 국제화 정도를 묻는 설문의 응답값⁸⁾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8) 앞의 <표-4>, <표-6> 그리고 <표-8>의 평균이라는 항목의 값과 전반적인 국제화 정도를 묻는 설문항목의 지역별 응답값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국제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통상경쟁력이라는 경제적 측면, 해외문화에 대한 수용성·개방성이라는 문화적 측면, 그리고 해외 관련 업무의 비중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국제화 개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국제화는 외부지향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외향적 이익추구형이 주된 흐름(이시철, 2007: 749)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모두에서 통상경쟁력의 확보라는 국제화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노력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부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세방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이 필요하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단으로서의 국제교류의 실효성 측면에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국제교류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참 고 문 헌

- 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논문집.
- 권영수. (1995). “日本地方政府의 國際化推進實態分析 및 韓國地方政府의 推進方向”.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 111-134.
- 김병량. (2000). 지방정부혁신의 원칙과 과제, 「지방정부혁신과 국제화」, 서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 김석태. (2007). “세방화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전: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137-156.
- 김천권. (2004). 「도시개발과 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 김형렬. (1993).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행정의 역할”. 「국제화에의 범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정책학회.
- 길병욱. (2004). “광역자치단체의 세계화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다면중첩형 세계화 전략을 위한 소고”. 「한·독사회과학논총」, 14(1), 291-316.
- 남영우. (2006). 「글로벌 시대의 세계도시론」, 서울: 법문사.
- 박세일. (1994). “국제화·세계화의 의미와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 사회」, 10, 6-19.
- 박용길. (2003).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2), 119-145.
- 박우서.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례”. 「국제교류」, 17, 63-70.
- 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정부학연구」, 16(1), 73-97.
- 윤재선. (2008). “새로운 글로벌시스템으로서 아시아지역시대의 구상: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03-332.

- 윤태범. (1995). 「21세기 경기도의 세계화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11.
- 이우권. (2009). “지방정부 국제화와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분석과 정책대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379-397.
- 이용현. (1994). “지방국제화의 현황과 과제의 실증적 분석과 행정 대응방안”. 「한국행정학보」, 28(4), 156-158.
- 이윤식. (2004). “지방의 국제화: 비전과 전략”.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이정용. (1995). “국제화시대의 지방자치행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 39-51.
- 이정주·최외출. (20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145-162.
- 이정주·박희방·최외출. (2001).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2), 143-169.
- 이시철. (2007). “지방 국제화의 새 영역과 통합 측정: 시론적 모색”. 「한국행정논집」, 19(3), 747-772.
- 임승빈. (2006). “지방분권과 지방의 국제화”. 「지방의 국제화 강연 및 컨설팅」,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조성호·박희정. (2004). “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8(4), 103-130.
- 최갑수. (2009).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역사학”. 「인문연구」, 57, 1-32.
- 충남발전연구원. (2005).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른 충남의 국제화 수준 제고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하영수.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117-134.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2007 자치단체 국제교류 백서」.
- 허훈. (2008). “국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91-113.
- 황정홍·전영평. (2000).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정책 분석-현실과 과제-”. 「한국행정논집」, 12(1), 67-91.
- 홍성우. (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및 특성 비교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6(2), 129-152.
- Matusitz, Jonathan & Maya Forrester. (2009). Successful Glocalization Practices: The Case of Seiyu in Japan, *Journal of Transnational Management* 14, 155-176.
- Meyer, John. (2000). Globalization: Sources and Effects on National States and Societies, *International Sociology* 15, 233-248.
- Robertson, R. (1995).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M. Featherstone, S. Lash and R. Robertson(eds), *Global Modernities*, 25-44. London: Sage.
- Wellman, Barry & Hampton, Keith. (1999). Living Networked On and Offline, *Contemporary Sociology* 28(6), 648-654.

[저자소개]

洪性佑 미국 Ball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2004)와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2007, 낙후 지역개발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전임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지방자치, 정책분석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출 결정요인 분석”(2010),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2009),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지역효과 분석”(200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정책효과 분석”(2007) 등이 있다(hsw89@khu.ac.kr).

